

# 현대복식에 나타난 양면감정

김영옥 · 김인숙\*  
장안대학 의상과 ·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 Ambivalence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Young-Oak Kim · In-Sook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Jangan College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hee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s of the present research were (1) to investigate the sociological factors influencing the increase of ambivale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bivalence and fashion change, (2) to categorize sets of the ambivalence expressed for contemporary fashion, and (3) to examine the frequency and the patterns of ambivalence presented for contemporary fashion.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in depth literature review and content analysis. Data was collected from 806 colored pictures presented on 'Collections' from 1972 to 1998. Eight types of clothing cues were included: look, color, texture, decorative motifs of clothing, collar, sleeve, and wearer's headdress/hair style and make-up.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popularization of culture has been accelerated by mass production, mass consumption and mass media. Since the 1980s, postmodernism and poststructuralism have resulted in the breakdown of dualistic distinction. As the ambiguity of meaning in appearance increases, the meaning is negotiated constantly for identity.

2. The most frequently expressed ambivalence in clothing was femininity/masculinity and tradition/modernity, and wealth/poverty was the least. The number of ambivalent expression were the highest during 1990s. The rapid growth in ambivalence of tradition/modernity was found in 1970s, femininity/masculinity in 1980s, and modesty/immodesity in 1990s. Within a clothing style, ambivalence was manifested through feminine look in white for beauty/ugliness, feminine look mainly in yellow/red for wealth/ poverty, sexy look dominantly in black for modesty/immodesity, androgynous look in black for femininity/ masculinity, and through ecology look most frequently in black for tradition/modernity.

Key Word : 양면감정(ambivalence), 복식단서(clothing cue), 개체 내 양면감정(ambivalence in an object), 사회 내 양면감정(ambivalence in a society)

## I. 서론

양면감정(ambivalence)이란 모순된 감정이나 불확실한 태도에서 비롯된 불안정성으로서, 복잡하고 이질적인 사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간의 가시적 자아표현 매체인 복식에도 표출되고 있다. Davis(1992)<sup>1)</sup>는 패션을 자아정체감 형성의 한 기제로 파악하면서, 유행 변화에 내재된 기본 요인으로서의 양면감정을 주장하였다. 그는 한 사회나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의 양면성으로 인한 긴장감은 유행의 변화를 촉진시키며, 양면감정은 또한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원천이라고 보았다.

###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대복식과 양면감정의 관계를 살펴보고, 현대복식에 나타난 양면감정의 범주와 그 단서의 표출형식을 밝히기 위한 연구로서 그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양면감정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본다.
- 2) 양면감정의 증대요인을 규명한다.
- 3) 복식에 나타난 양면감정 범주를 살펴본다.
- 4) 양면감정 표현단서의 표출형식을 고찰한다.

### 2. 연구방법

연구목적 1) 및 2)를 위해서는 의류학, 미학, 사회학 분야의 문헌을 중심으로한 문헌연구를 행하였으며, 연구목적 3)을 위해서는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내용분석자료는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의 Paris Prêt-à-Porter 컬렉션을 가장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분석 타당성이 있는 패션잡지로 판단되는 'Collections'에 실린 1972년 S/S부터 1998 S/S까지의 칼러사진으로서 전체 복식형태를 알 수 있는 806(매 시즌별: 30장×27회 중 4장 제외)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시각적 양면감정의 범주로는 범주구분이 용이한 '미/추', '부/빈', '정숙성/비정숙성', '여성성/남성성', '전통성/현대성'의 다섯가지 범주로 한정하였다. 양면감정을 표현하는 복식단서는 록, 색채, 소재, 문양, 네크라인 및 칼라형태, 소매형태, 모자/머리형태, 화장유형을 포함하였다. 양면감정의 범주결정 및 단서분석 범주들의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상사회심리학 전공자 및 복식미학 전공자의 조언을 구하였다.

색채분석도구는 수정 Munsell 표색계(1994)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본 연구자를 포함한 3인의 의류 전문가가 분석하였으며, 분석자료의 신뢰도 Cronbach  $\alpha$  값은 0.79로 나타났다. 자료분석은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 II. 양면감정의 개념과 특징

### 1. 양면감정의 개념

#### 1) 이항대립

인간의 인식행위의 시초는 개념적 범주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서 개념적 범주화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설명하는 의미부여 과정의 핵심을 이룬다. 개념의 범주화 과정의 기초는 유사성과 차이의 인식, 즉 같은 것끼리 묶고 다른 것끼리 나누는 과정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인간의

1) F. Davis(1992),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17.

범주구축은 이항대립의 구조에 기초하고 있으며 컴퓨터는 바로 이와 같은 반복적 이항대립의 사고과정을 모사 재현한 'bit'로 작동하는 이항적 사고기계이다. 프라그학과의 음운학자 Jakobson(1962)<sup>2)</sup>은 수학적 정보이론을 도입한 이항대립의 원리, 즉 음들이 갖는 대립과 차이는 '예' 또는 '아니오'의 이진법적 선택에 의해 다른 것과 구분되고 언어적 의미 대립과 차이가 의미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지식의 고수준이나 체계화 복잡성은 이와 같은 이진법적 선택의 횟수 증가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구조주의 사회학자 Strauss(1963)<sup>3)</sup>는 음운학의 이진법적 이론을 사회적 의미체계를 분석하는 구조주의의 중심개념으로 도입하여 언어, 요리, 의상, 가족, 친족체계, 신화 등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는 기호학적 체계 전반에 걸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기본 틀로 삼았다. 구조주의 기호학자였던 Barthes(1984)<sup>4)</sup>도 다양한 문화적 체계들을 모두 이항 대립적 구조로 분석하였으며, Fiske(1990)<sup>5)</sup>는 미국의 대중지 표지를 내용 분석하여 미국의 의미체계가 '과학/종교, 이성/비이성, 설명 가능한 것/설명 불가능한 것, 기독교 신앙/이단, 현세적인 것/기적적인 것, 자연적인 것/초자연적인 것, 육체적인 것/정신적인 것, 확률/우연, 과도한 노력/적절한 노력, 남성성/여성성, 공공적/개인적, 공무원/개인, 문화/자연, 죽음/생명'으로 나누어지고 이들 범주 중 왼쪽에 있는 범주들이 사회적으로 우세한 지배적 가치라고 하였다. 인간사고의 본능적 기계작용으로 알려졌던 이항대립적 범주화 행위는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즉 현대인의 행동 중에는 이항대립원리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모호하고 복합적인 행위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비교적 새로이 주목을 받게된 인간의 또다른 본능적 감정의 하나인 양면감정에서 비롯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 2) 양면감정

양면감정이란 사전적으로는 '정반대의 감정 또는 심리적인 태도, 지속적인 마음의 동요, 태도,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정의된다(Webster, 1986). 이 개념은 1910년경에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Bleuler가 처음 도입한 병리학적 개념으로서 의지, 사고, 감정의 3가지 측면에서 생기는 상호 배타적인 모순적 감정을 의미한다.<sup>6)</sup> Freud는 더 나아가 병리적 현상으로서의 양면감정뿐만 아니라 인간 감정의 본능인 죽음과 삶에 대해서도 양면감정이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즉 인간의 삶이란 생명에 대한 eros적 본능과 죽음에 대한 thanatos적 본능의 대립적 양면감정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지속과 죽음에로의 집착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타협이라고 보았다.<sup>7)</sup> Fromm도 인간의 이성과 상상력, 자의식이 인간으로부터 여타 동물들이 누리는 조화와 평온함을 빼앗아 갔으며 이러한 능력들이 인간을 양면감정에 시달리는 혼돈적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즉, 20세기 초 이래 인간이 느끼는 이항 대립적 가치나 정서로의 동시적, 반대방향으로의 이끌림, 상호 모순적 감정 등에 대한 탐색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병리학적

2) R. Jakobson, C. Cherry and M. Halle(1962), Toward the Logical Description of Languages in their Phonemic Aspect, in Roman Jakobson's Selected Writings Vol.1, The Hague:Mouton, p.453.

3) C. L. Strauss(1963), Structural Anthropology, trans. by C.Jacobson and B. G. Schoepf, London: Basic Books Inc., pp.358-359.

4) R. Barthes(1984), Writing Degree Zero & Elements of Semiology, trans. by A .Lavers and C. Smith, London: Jonathan Cape, pp.94-95.

5) J. Fiske(1990),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pp.132-133.

6) Britannica World Encyclopedia, 10(1993), 서울: 한국브리태니커, p.416.

7) Z. Bauman(1992), Mortality, Immortality and Other Life Strategi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21.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의 실존적 조건 혹은 본능으로 파악하는 관점이 강화되고 있다. Bauman<sup>8)</sup>은 양면감정을 '한 개의 사물을 한 개 이상의 범주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했고, Weigert (1991)<sup>9)</sup>은 '상호 모순적 감정들, 즉, 상호 모순적인 것으로 정의된 느낌들'로서 문화적으로 정의된, 예를 들면 사랑/증오, 매력/혐오, 경탄/경멸, 기쁨/슬픔 등의 이항 대립적 범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양면감정을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대표적인 감정반응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동양철학에서는 양면감정의 개념은 긍정적이다. 老子에 의하면 세상에서 미(美)를 모두 아름다운 것으로 이해할 때 추(醜)가 존재하며, 같은 방법으로 선/악, 쾌락/고통, 생/사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전체적인 경험이 아니라 단지 동일한 실재의 양면이라는 것, 즉, 단일한 전체의 양극이라고 하였다. 모든 대립자는 양극적인 것을 깨닫고, 그리하여 통일체를 이루는 것이 인간으로서 최고의 목적 중의 하나라고 여긴다. 음양의 배후에 놓여있는 통일체를 도(道)라고 부르고, 그것을 음양의 상호작용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다.<sup>10)</sup> 즉, 한 개의 실재가 완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면감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인간은 이와 같은 양면감정의 실체를 이해하고 그 통일체적 모습을 각성하게 됨으로써 깨달음을 완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 2. 양면감정과 사회

Coser(1956)<sup>11)</sup>는 양면감정이란 인간의 모든 친화

관계의 특징적 모습이라고 하였으며, Goffman (1959)<sup>12)</sup>은 우리가 자신을 타인에게 내보이는 연극적 행위의 일반적인 모습이 양면감정이라고 하여, 양면감정이 모든 대인관계 및 사회적 행위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Bauman(1992)<sup>13)</sup>은 양면감정을 사회적 규범과 그에 대항하는 일탈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즉, 지금까지는 만족스러운 상대였으나 현재에는 부정적 감정을 유발시키는 인적 대상에게, 혹은 과거에는 자아와 타자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내면화된 규범이 되어왔으나 현재에 이르러는 고통스러운 역할을 요구하는 특정규범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가치가 양면감정이며 따라서 양면감정은 기존의 규범이나 관계에 저항하는 일탈행위의 기저감정으로 규정하였다.

Merton(1976)<sup>14)</sup>은 병원종사자 등 과학과 의학계 종사자들이 갖게 되는 양면감정을 연구하였으며, Myrdal(1944)<sup>15)</sup>은 미국인의 인종적 양면감정이 미국사회의 딜레마를 야기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미국인들은 만인이 모두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으나 동시에 흑인들의 불성실, 범죄성향, 약물중독, 성 문란 등이 흑인들의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백인들에게 한편으로 친절과 동정,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경멸과 혐오로 이루어진 갈등적 감정들을 남긴다. 그들은 이러한 양면감정의 해결방법으로 자신이 흑인과의 접촉상황을 기피함으로써 스스로의 편견에 마주치지 않도록 하여 양면감정으로 인한 갈등에서 자신을 보호한다. 백인들은 두 개의 갈등적 가치관, 즉, 한편으

8) Z. Bauman(1991), *Modernity and Ambivalence*,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p.1.

9) A. J. Weigert(1991), *Mixed Emotions*,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p. 35-37.

10) F. Capra, *The Tao of Physics*, 이성범·김용정 역(1979),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증보제3판, 서울: 범양사, pp.161-162.

11) A. J. Weigert(1991), 앞글, p.40.

12) 윗글, p.65.

13) Z. Bauman(1992), 앞글, p.19.

14) R. Merton(1976), *Sociological Ambivalence*, New York: Free Press, pp.3-31.

15) 홍대식(1994), *사회심리학*, 서울: 청암미디어, p.731.

로는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과 인종적 관용을 주장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종편견이라는 양면감정을 고수하고 있음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긴장이 지속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이 양면감정은 한 개인의 사회적 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양면감정이 주는 갈등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다양한 태도와 행동의 전략을 구사한다.

### 3. 양면감정과 기호

여러 기호체계 사이에는 하나의 긴장상태가 유지되어 있다. 오랜 동안 관습화되고 약화되는 예술이나 문화에서는 그 문화약화를 유지, 보존하려는 보수적인 힘이 기호화하여 자동화하는 한편, 그 문화약화에 식상한 요소를 변화시켜 새로운 약화를 창조해 내려는 탈기호화의 지향성으로 작동하여 그 두 가지 힘이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문화의 역동성이 생겨나고 활력이 가해진다.<sup>16)</sup>

Garrison(1982)<sup>17)</sup>은 양면 감정은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이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며, 모든 이미지와 환상의 구조를 이루거나 세계를 은유하는 증상, 상징, 맥락으로서 패션을 제시하는 가능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Baudrillard는 기호와 기의의 관계에서 볼 때, 기호는 기의와의 동가성, 상징은 기의의 양면감정에 기초하고 있는 표기체제로서 상징에서 기호로 나아가면서 양면감정을 줄이고 명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이것을 '기호학적 축약'이라고 했다. 즉, 양면감정은 이미지 등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감정이나, 그 자체의 갈등과 모호성으로 인해서 기호와 같은 의미의 명료성이 약화되어 기호보

다는 모호성이 큰 상징의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양면감정은 그 본질상 불확실성, 모호성의 의미를 동반한다. 모호성(ambiguity)과 양면감정의 사전적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모호함이란 애매성, 중의성이라고 하는 다중적 의미이고, 양면감정은 좀더 모순되고, 갈등적인 주관적 상태를 의미하지만 양면감정을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양면감정을 모호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해 왔다. 모호함이란 양면감정의 부산물로서 이를 주관적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Nietzsche(1887)<sup>18)</sup>는 인간 내부에는 서로 대립되는 다양한 충동이 잠재되어 있는데, 양면감정은 인간의 상황이 불안정한 경우에 형성된다고 하였다. Freud(1950)<sup>19)</sup>는 양면감정의 기원, 즉 정신분석학이 제시하는 모호성의 기원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파악하여 모호성을 '언어의 놀이 뒤에 감춰진 것'(It is hidden behind a play upon words)으로 정의한다. 심리구조란 표면적인 의식과 잠재된 무의식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어 뒤에 감춰진 두 가지 의도(의식과 무의식)는 동일한 성질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곧 모호성이다.'라고 논의했다. Freud는 양면감정의 상호 배타적인 모순이 공존하는 특성을 타부(taboo)와 연결시켜 설명하였다. 타부는 특정한 종류의 양면감정과, 양면감정에서 비롯된 모든 것을 의미함으로써 타부적 금지들이 양면적 감정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의 타부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은 전쟁에서 돌아온 승자(勝者)에 대해서 상호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다. 승자는 승자로서의 대접은 받지만 그들이 죽인 사자(死者)에 대해 애도하면서 여러 가지 금기 사항을 준수하도록 강요받는다. 사자는 살아있는

16) 蘇斗永(1995), 文化記號學, 서울:社會文化硏九所, p.336.

17) M. Garrison(1982), The Poetics of Ambivalence, In J. Hillman(ED), Spring: An Annual of Archetypical Psychology and Jungian Thought (pp.213-232), Dallas, TX: Spring Publication, p.229.

18) F. Nietzsche(1887), Der Wille zur Macht, 강수남 역(1998), 니체, 서울: 청학, p.561.

19) S. Freud, Totem and Taboo, trans. J. Strachey(1950), New York: W. W. Norton, p.18.

자가 가질 수 없는 힘을 가진다고 믿어 애도와 두려움을 표현하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죽은 자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지배자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가질 수 없는 힘을 부여하는 대신에 많은 제약과 금기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적/지배자/사자에 대한 타부는 죽음에 대한 의식적 고통과 무의식적 만족 사이의 대립이라는 양면적 감정의 산물이며 타부의 이중적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는 애도와, 자기 방어로 위장되고 은밀하게 감춰진 적대감의 동시적 표현이다. 타부의 이중적 기원이 인간의 의식/무의식의 갈등에서 비롯된 양면적 감정태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양면감정 증대의 요인

Weigert(1991)<sup>20)</sup>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양면감정은 개인적인 병리현상이 아니라 문화적, 제도적, 사회·심리적 요인으로부터 온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반응은 이를 잘 소화한 자연스러운 태도로부터 정신병, 대인 기피증, 농담, 유머, 반문화적 행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하였다. Bauman(1992)<sup>21)</sup>도 양면감정이야말로 그로부터 사회조직이 구성되고 문화가 조성되는 기초적 소재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사회학자들은 양면감정이 개인의 내면이나 가족 친지 간 등 매우 친밀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감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나아가 양면감정이 사회조직 속에 구조화되어 있다고 말한다.<sup>22)</sup> 즉, 한 사회의 사회적 구조는 개인에게 자가당착 적이거나 모순적인 역할을 요구

함으로써 양면감정을 필연적으로 생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양면감정을 증대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는 대중문화의 출현,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성, 후기 자본주의의 마케팅 환경을 들 수 있다.

#### 1. 대중문화의 출현

현대사회는 대량소비와 더불어 다양한 대중매체가 등장하면서 대중문화의 개념이 나타났으며, 대중문화는 그 속에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즉, 통합/일탈, 지배/저항 등의 대립구조로 이루어진 문화이다.<sup>23)</sup> 대중 문화는 다양한 이미지 자체가 상품으로 인식되면서 문화의 개념은 전통적 예술문화, 고급문화의 지위에서 대중문화, 일상의 문화로 본질적인 개념 수정을 보았다. 예술의 상품화는 문화적 소비가 편재하고, 소비가 테크놀로지의 혁신에 의해 생산과 통합되어, 소비자가 또한 생산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문화와 대중 문화는 구별된다.<sup>24)</sup> 문명비평가 Sorman<sup>25)</sup>에 의하면, 앞으로 매스미디어는 곧 사라지고 수천 개의 마이크로미디어로 전환되면서 인터넷과 디지털 혁명에 의해 문화생산에 절대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다. 디지털이란 문화생산자/문화수용자가 동시에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개인의 작품을 발표하고, 또한 수많은 매니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21세기 문화의 변화는 곧 문화의 생산/수용의 개인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구분에 대한 해체현상의 가속화와 전통적 이항대립적 사고 영역의 다면적, 혹은 정서적인 양면감정의 영역으로 치환되어 나가고 있다.

20) A. J. Weigert(1991, 앞글, pp.40-51.

21) Z. Bauman(1992), 앞글, p.19.

22) A. J. Weigert(1991), 앞글, p.40.

23) 원용진(1997),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서울: 한나래, p.28.

24) S. Aronowitz(1994), Introduction : The Death of Art. 남인영 역(1996), 21세기 문화 미리 보기, 서울: 시각과 언어, p.47.

25) 조선일보, 2000.1.7., p.18.

## 2.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성

포스트모더니즘은 역사의 부정, 해체전략, 모더니즘의 역전, 지속성-일관성의 부정, 창조성, 근원성에 대한 경멸과 불신 등 수많은 특성을 지녔으나 가장 중심적인 특성은 다원주의이다. 다원주의는 후기 산업 사회의 문화적 구조 안에서 불안정과 혼동으로 인해 갈등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간의 욕망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과 이념, 문화, 계층, 지역, 국가, 민족 등의 관심을 두면서 다원적인 요소들 간의 수평적인 조절과 조화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에서 발달한 이른바 '억압된 것의 복귀'가 매우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여, 그 동안 주변적이고 포피적인 것으로 무시되어 왔던 것들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으면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즉 '미/추', '부/빈', '정숙성/비정숙성', '여성성/남성성', '전통성/현대성' 등과 같이 모더니즘에서는 다양한 이분법적 대립이 상호소의 상태를 유지했지만, 해체구성 및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그와 같은 쌍들이 상호소의 없이 해체된다.<sup>26)</sup>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인 탈 중심화는 사회철학적 차원에서 다원주의로 이해할 수 있다. 예술적 차원에서의 탈중심화는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주목, 경계 허물기, 모순된 요소들과의 결합, 역사주의와 토속성의 강조, 본질주의적 의미, 실질과의 연관 거부 등의 끝없는 유희를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의 내적 모순의 논리<sup>27)</sup>를 반영함으로써 양면감정이 증대된다.

## 3. 후기자본주의의 소비주의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주의 시장은 대중들

의 불안정하고, 의미가 모호한 양면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야기되는 혼동과 갈등을 상품에 표현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변화의 욕구를 느끼게 하여 상품의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sup>28)</sup> 이러한 소비자의 변화욕구는 이미 상품의 다양화가 일어난 상태에서는 정체되기 쉬워지므로, 자본주의 시장은 기존의 형태를 변화, 모방시키는 혼성모방을 통해 상품의 특성, 특히 상징적 이미지를 한없이 다양하게 변화시킴으로써 끝없는 소비욕구를 자극한다. 또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통해 끊임없는 상품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상품의 다원화현상이 초래되고, 소비자의 감정은 점점 더 다양한 방향에서의 이끌림을 당하게 되어,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은 지속적인 양면감정의 갈등에 따른 상징적인 기호와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이다. Faurschou(1987)<sup>29)</sup>는 패션은 가장 완벽하게 발전된 자본주의 상품형태로서 혁신을 추구하는 충동적인 욕망과, 결코 만족될 수 없는 욕망을 자극하고 배가시키려는 양면감정 사이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후기자본주의 사회인 20세기 후반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인 지속적인 소비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마케팅 기법으로서 양면감정 자극의 기술이 범람하는 환경이다.

## IV. 복식문화와 양면감정

### 1. 패션과 양면감정

양면감정은 인간과 문화의 여러 범주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Greetz(1973)는 구체적인 양면감정의 대상은 의미가 부여된 인공물, 사상, 신념, 이미지, 관행, 목적과 같은 사회적 것들로 우리가 몸짓, 표현, 장식, 상징, 신호, 언어 등을 통해 의사소

26) 문화와 사회 연구회(1994), 현대와 탈 현대,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p.139.

27) 김혜숙·김혜련(1997), 예술과 사상,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309.

28) S. B. Kaiser, R. H. Nagasawa & S. S. Hutton(1995a), Construction of an SI theory of Fashion: Part 1, Ambivalence and Chang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3(3), p.181.

29) G. Faurschou(1987), Fashion and the Cultural Logic of Postmodernity: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and Social Theory*, II:1-2, p.72.

통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였고, Mead(1934)는 사회적 대상들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뚜렷이 나타나는 양면적인 것이 '자아'라고 보고, 사회가 복잡하고 이질적일수록 양면감정이 자아정체감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sup>30)</sup> 조형예술로서 문화적 의미를 함의하는 현대 복식은 다원적인 포스트모더니즘을 좌표축으로 하여 다양한 양면감정과 입체적인 상호 관련성을 가지며 세기말의 과도기적 혼란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복식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혼성모방, 저항적 하위문화의 일탈, 후기자본주의의 정체감의 혼돈, 환경위기의식 등으로 파편화되고 다양한 양상을 띠는 한편, 복식의 전통적 순수미와 인체미의 상징적 역할, 성적체감의 해체로 양성적 특성이 공존하는 앤드로지너스룩, 에콜로지 경향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의 양면감정에 의한 복식의 다원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복식의 양면감정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막연한 두려움이 공존하며, 현재에 안주하고자 하는 속성과 미래지향적인 성향이 공존하는 세기말적인 현상으로 인해 증가되어왔다. '95-'96 F/W Europe Trend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세계 패션의 흐름을 주도하며 예측하는 *Primiere Vision*은 Audio Visual 화면을 통해 동전의 양면을 보여 주면서 '양면감정의 공존'을 트렌드로 제시하였다.

## 2. 유행확산과 양면감정

Davis(1992)<sup>31)</sup>는 양면감정이 유행확산의 원동력

임을 간파하였다. 그는 양면감정은 인간의 타고난 본능으로서 유행현상이란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의 양면성의 균형 잡기를 통한 자아정체감의 표현이라고 보았다. 즉, 인간의 정체성이란 한 인간이 주어진 문화나 사회환경의 복잡성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무수한 양면감정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부터 형성되며, 이러한 해결과정에 유행확산이 관여한다는 것이다. Blumer(1969)<sup>32)</sup>가 사회적 변화에 대한 패션의 집단적 적응 기능을 강조했던 반면, Davis(1992)<sup>33)</sup>는 패션이 한 문화가 갖는 약호 체계로부터 유래하는 불안정과 갈등을 표출하는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Baudrillard(1981)<sup>34)</sup>는 양면감정을 상징적 의미교환에 기초를 둔 논리라고 정의함으로써, 사회적 규범 등에서는 양면감정의 가치 파열이 일어날 때 유행의 변화가 수반되므로 이러한 스타일은 애매모호하여 다의적 해석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Kaiser(1995)<sup>35)</sup>는 양면감정은 사회적 의미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협상의 한 표현으로서 패션스타일의 변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패션스타일 변화과정은 의미협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스트모더니즘사회에서는 이 과정에서 상징적 의미의 모호성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모호한 의미를 사회성원이 공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안정적 의미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사회성원 간의 의미에 관한 협상작용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어느 기간동안 의미의 안정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모호성의 정서나 욕

30) F. Davis(1992), 앞글, p.24.

31) 앞글, pp.23-24.

32) S. B. Kaiser et al.(1995a), 앞글, p.173.

33) 앞글, p.174.

34) J.Baudrillard(1991), For acritique of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ign. Trans with intro. by C. Levin. St. Louis: Telos Press, p.149.

35) ① S. B. Kaiser et al.(1995a), 앞글, p.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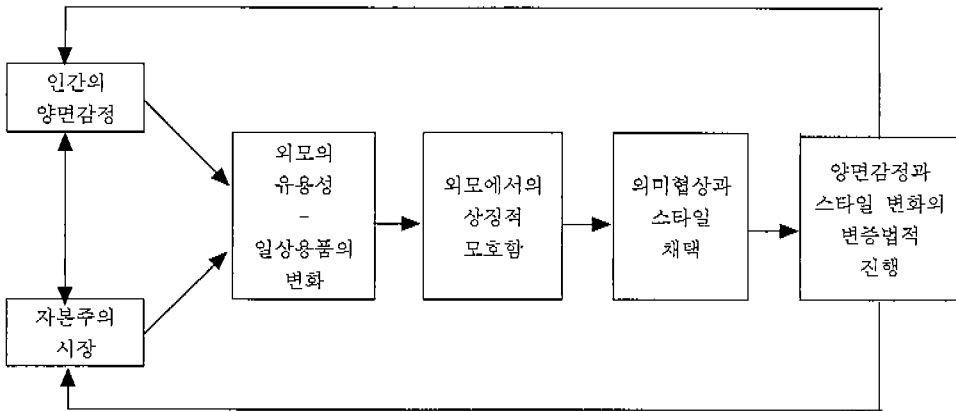
② S. B. Kaiser, R. H. Nagasawa & S. S. Hutton(1995b), Construction of an SI Theory of Fashion: Part 2, From Discovery to Formalization, *Clothing & Textile Research Journal*, 13(4), pp.234-244.

③ S. B. Kaiser, R. H. Nagasawa & S. S. Hutton(1996a), Construction of an SI Theory of Fashion: Part 3, Context of Explanation, *Clothing & Textile Research Journal*, 14(1), pp.234-244.



망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로서 재생산되므로 모호성과 스타일변화의 욕구 사이에는 끝없는 의미의 변증법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양면감정은 바로 의미협상 과정의 원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행에 있어서는 모든 이미지와 환상의 구성적 측면이며, 세상에 대한 건설적 은유로서의 증상, 상징, 문맥으로서<sup>36)</sup>, 패션 제조업자를 비롯한 자본주의시장은 지속적인 양면성으로부터 이윤을 취한다. 즉, 이들은 의미의 모호성으로 인해 생기는 혼돈과 갈등을 상품에 표현하

역할을 담당한다. Kaiser는 자본주의가 양면감정을 자신의 이익의 보고로 생각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의미의 복합체를 상품화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의미협상 가능성의 폭과 깊이를 열어 주고 이것이 바로 의미교환, 의미의 변증법적 발전을 위한 의류제조업자와 소비자 간 상호작용의 장을 형성한다고 보았다.<sup>37)</sup> 이상에서의 Kaiser의 양면감정의 모호성에 기초를 둔 유행확산 패러다임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그림 1> 패션확산 과정 - 외모·스타일의 변화

\*출처 : S. B. Kaiser, R. H. Nagasawa & S. S. Hutton(1995), Construction of an SI theory of Fashion: Part 1, Ambivalence and Chang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3(3), p.176.

거나, 상품으로 중재하려는 역할을 스스로 기꺼이 떠맡을 뿐만 아니라 양면감정과 그로 인한 의미의 모호성이 되도록 오래 지속되기를 원한다. 즉 이들은 양면감정을 적극적으로 상품화한다는 것이다. 양면감정은 상품의 변화속도가 대단히 빠른 패션상품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즉 변화의 속도가 의미정착의 속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옛 의미와 새로운 의미가 한 제품 속에 같이 들어있어 수용자를 혼란스럽게 한다. 또한, 이러한 양면감정은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변화가 가속적으로 빨라지는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패션과 외모의 변화과정에서 중요한

## V. 복식에 나타난 양면감정 범주

복식에 나타난 양면감정 범주를 본 연구에서는 ‘미/추’, ‘부/빈’, ‘정숙성/비정숙성’, ‘여성성/남성성’, ‘전통성/현대성’으로 한정하여, 각 양면감정들의 의미와 복식에서의 표현방법을 살펴보았다.

### 1. 미/추

추(醜)는 미(美)와 대립적인 개념으로, 미적 규범에 어긋나며 미적 관조를 방해하는 반(反)미적인

36) S. B. Kaiser et al.(1995a), 앞글, p.175.

37) 김인숙(1998), 여성잡지 의류광고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31-32.

것을 의미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추는 미의 부정대, 종교적인 악으로만 취급되어 예술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았다. 중세에도 고대의 추 개념이 지속되었으며, Augustinus도 추를 미의 반대적 개념으로 보았으나, 나중에는 추는 형태적인 결합, 질서의 결핍에서 기인하며, 전체 중에서 대비에 의해 미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하위적인 개념이라고 하였다. 근세에는 바로크의 사실주의, 자연주의의 예술을 통해 추는 예술의 한 영역으로 추구되어 왔고, Hegel 학파의 한 사람으로 '추의 미학'을 쓴 Rosenkranz (1931)<sup>38)</sup>는 그리스시대에서부터 이어져온 미개념의 완전한 설정을 위하여 미의 반대개념으로서 꼭 필요한 개념으로 추를 인식하였다. 그는 추를 (1)무형태, 불균제, 부조화와 같은 내적 형식의 몰형식성(Formlosigkeit), (2)객관성등 외적 형식의 표현의 부정확성(Inkorrektheit), (3)정신적 자유의 부정적, 비속 혐오등에 근거하는 왜곡(Defiguration oder Verbildung)으로 구분하였다. 최근 Lipps의 미학에서도 추를 '소극적인 감정이입'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미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추의 적극적인 의의를 인정하고 있다. 안선경<sup>39)</sup>은 현대복식에서 몰형식, 부정확성, 왜곡과 같은 추의 특징을 많이 내포하는 것으로 아방가르드, 표현주의의 원시성, 그로테스크, 데카당스, 키치, 패스티쉬, 패로디를 들고 있다. 몰형식성과 부정확성은 '억압된 것들의 복귀' 현상과 청년문화를 비롯한 반문화, 대중문화 등이 바탕이 되고 있으며, 복식을 통해 나타나는 예로는 패션쇼를 통한 충격효과, 속옷의 의의화, 성의 혼돈, 복식구성 아이템의 위치전환, 디자인의 탈 형식화, 의

도적인 의복구성의 미숙성, 관념적인 소재사용에서의 탈피, 착의 순서의 비질서화, 신체과장 등을 들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전통성을 거부, 미래지향적인 경향, 세기말적 염세주의, 충격효과, 무형식성, 부조화, 유희성 등을 표현하면서, 추에 대한 미적 표현이 증가하여 미/추가 동시에 표현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해졌으며, 이는 인간성 회복추구, 대중성 지향이라는 공통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 2. 부/빈

Lofland(1973)<sup>40)</sup>는 산업화 이전 유럽은 '외모에 따른 질서체계'에 의해 지배되었다고 보았고, Veblen(1899)<sup>41)</sup>은 과시적 소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지도가 높은 특정 라벨의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자신의 유한적인 지위를 과시한다고 강조하였다. Bourdieu(1984)<sup>42)</sup>는 상위계층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을 사용함으로써 지배적인 지위계층의 특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에도 값비싼 복식을 과시하려는 욕망으로 도시청소년들의 폭력과 살인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뉴욕의 빈민가 South Bronx에서 Beverly Hills에 이르기까지 현대 청소년들은 복식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복식 때문에 걱정하고, 복식을 위해 경쟁하며, 복식을 위해 학교를 빠질 수도 있고, 심지어 강도나 살인까지도 할 수 있다고 Harris(1989)<sup>43)</sup>는 보도하였다. 한편 Chanel의 유명한 'little black dress'는 가난한 체하는 가장을 통해서 사회적 우월감을 표시하는 양면감정의 예이다. Ashley<sup>44)</sup>는 이것을 '고급스

38) H. Glockner, K. Rosenkranz & K. Fischer als A'sthetiker der Hegelschen, Schule(1931), pp.443-453.

39) 안선경(1994), 현대복식에 표현된 추의 개념, 1980년대 중반부터 1994년까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7-32.

40) L. H. Lofland(1973), A World of Strangers, New York: Basic Books, pp.29-91.

41) T. Veblen(1912), The Theory of Leisure Class, 정수용 역(1985), 유희계급론, 서울: 동녘, p.159.

42) F. Davis(1992), 앞글, p.59.

43) R. Harris(1989), 'Children Who Dress For Excess,' Los Angeles Times, San Diego County Section, Nov. 12.

44) I. Ashley(1972), CoCo, In. Lynam, p.119.

런 빈곤'의 의도라고 평했으며, 뒤따라온 대공황은 '빈곤한 모습'을 우아한 것으로 전환시켰다.

지위와 관련된 복식상징의 또 다른 예는, 현대사회의 정장과 캐주얼 복에 대한 양면감정이다. 1980년대 미국의 상위계층에서는 복식의 캐주얼화 경향을 추구하였다. 찢어진 티셔츠 위에 착용한 평범한 가죽 재킷, 너털너털한 청바지, 중고 재킷, 흠이 있고 때가 묻은 카우보이 부츠 등으로 '도발적 반 패션'을 창출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소모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은 푸어록을 착용함으로써, 새롭게 확립한 자신감을 상반되게 표현하였다. 즉, 고급스런 복식은 그들의 성공을 위한 투쟁의 나날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후에는 오히려 고급스런 복식에 대한 경멸감을 갖게 된다<sup>45)</sup> 지적과 같이 사회적 규범에 무관심한 듯한 태도, 반항적인 태도가 지위상징에 있어서 더 심한 가치전도와 모호함을 표현한다. 복식사상 블루진만큼 지위의 양면감정과 모호함을 잘 나타낸 복식은 거의 없다. 19세기 중반 Strauss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광부와 노동자복이었던 블루진은 오늘날 성공적인 원동력을 상징하거나, 디자이너 진으로까지 변화되어 과시적 소비를 상징함으로써 지위의 양면감이 약화된 대표적인 복식이다. Finlayson은 그의 저서, '청바지: 미국의 전설'에서 블루진은 사람들이 보헤미안의 세계에 약간은 소속된 듯한 환상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sup>46)</sup> 현대에 와서 블루진은 근본정신인 독립, 자유,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과시적 소비와 지위를 상징하는 '디자이너 진'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양면감을 대변하고 있다.

### 3. 정숙성/비정숙성

Flügel(1967)<sup>47)</sup>은 의복착용 동기를 성본능으로 보고 패션변화의 요인을 정숙성/비정숙성의 상반된 대립이라고 하였으며, 인간은 무의식적인 성적 속성을 복식에 표출하는데, 여성복은 남성복에 비해 정숙성/비정숙성이 상충하는 경향으로 보았다. Laver(1969)<sup>48)</sup>는 Flügel과 더불어 복식변화를 신체의 특정 부위를 은폐, 노출, 강조를 통해 성적매력을 증대시키는 성감대 전이이론을 주장하였으나, Davis는 시대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성감대 인식의 모호성, 성감대 전이 부위에 대한 이론적 근거의 불충분 등으로 복식변화를 성감대 전이이론으로 설명하기란 적절치 않다고 하였다. 그는 복식에서의 정숙성/비정숙성을 주관적인 갈등관계 뿐만 아니라 종교적, 문화적, 지역적인 것에 대한 양면감을 주장하였다.

Wax's(1957)<sup>49)</sup>는 복식에서의 에로틱한 가치를 경직성/유연성, 노출/은폐의 상징적 대립관계에서 형성된다고 보고, 현대의 브레지어를 은폐/노출의 변증적인 복식의 예로 들었다. 1990년대에는 시-스루(see-through) 경향이 유행하여 정숙성/비정숙성의 양면감을 표현하였으며, 속옷의 겉옷화 현상 또한 노출/은폐, 정숙성/비정숙성의 양면감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은폐되어야 할 부분이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공간적 개념이 파괴되고, 전통미와 퇴폐미의 혼돈이 내재된 현대복식의 창조적 해체현상을 나타낸다. 1990년대 이후 성의 상품화 경향에 따라 노출이 점차 확대되고, 정숙성/비정숙성이 동시에 표현되는 패션현상은 새로운 미를 추구하는 성적욕구의 한 투쟁으로 은폐는 또 다른 노출을 강조한다.

45) T. Fisher-Mirkin(1995), Dress Code: Understanding the hidden meaning of Women's Clothes, Clarkson Potter, pp.172-173.

46) Steele(1998), Se Vetir au XXe Siècle De 1945 à nos jours, Paris: Adam Biro, p.111.

47) C. Flügel(1967), Psychology of Dress(Clothing), N.Y.: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p.107.

48) F. Davis(1992), 앞글, p.83.

49) 윗글, p.88.

#### 4. 여성성/남성성

20세기 다원화 된 사회현상 중 하나로 성 개념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특히 복식에서 두드러진다. 서구의 복식사는 이성의 복식요소를 차용하여 반대성의 성적이미지를 모방하려는 갈등의 연속이었다.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였던 여성들은 자유와 권위획득을 위해 남성적인 특성을, 남성들은 종교의 지배에서 벗어나 세속적인 향락을 위해 장식성이 강한 여성적 특성을 표현하였다. 근대 이후 남성복은 장식성이 배제되어 실용적인 스타일로 변화된 반면 여성복은 남성적 복식요소를 적극적으로 모방해왔다. 현대전반기에는 스포츠의 보급, 여성해방운동 등으로 남성적 이미지인 기능적인 복식이 강조되었다. 후반기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양한 가치추구에 따라 양성적 특성이 공존하는 앤드로지너스룩이 10대 하위 문화론자, 동성연애자, 남녀 록 가수들에 의해 표출되었다. 1980년대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원적인 특성을 페미니즘 뿐 아니라 앤드로지너스 룩에 영향을 주었는데, 앤드로지너스 룩에 기능적 요소와 장식적 요소를 동시에 강화시켰으며,<sup>51)</sup> 1990년대에는 그 영향이 더욱 강조되었다.

인간의 모방심리는 여성 속의 남성 이미지인 anima와, 남성 속의 여성 이미지인 animus로 이루어져 있다는 Jung<sup>51)</sup>의 이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인간은 한 인격체 내에 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과 반대인 성을 복식을 통해서 표출함으로써 통합적인 인격체를 무의식적으로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이다.

#### 5. 전통성/현대성

현대 산업사회의 획일화된 물질문명 상황하에서

생태적 위기감과 세기말적 불안감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회귀의식과 휴머니즘적 생활을 추구하게 되었다. 현대복식에서도 전통양식에 대한 재인식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적 질충주의 지향, 환경위기 의식에서 야기되는 에콜로지 지향, 사회 동조 현상으로서의 유행 개념의 다양한 현상이 표출되고 있다. Finkelstein(1985)<sup>52)</sup>이 현대 복식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20세기 사회에는 외모에 대한 공공연한 규칙이나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언급한 것처럼 현대복식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복합적인 양상으로서 구축주의/비구축주의, 모더니즘/클래시시즘, 노스텔지어/아방가르드, 동양적 요소/서양적 요소, 수공예적 기법/현대적인 테크놀로지의 양면 감정이 공존하며, 표현되는 전통성은 빅토리아의 극단에서 아르데코의 기하학, 구조적인 형태 등 그 범위가 다양하다. Gaultier는 다양한 이질적 요소를 대립 혹은 접목시켜 새로움을 창조해 내는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과거 역사 속의 복식 또한 그에겐 흥미로운 주제이다. 그는 1994 F/W컬렉션에서 아시아의 전통적 요소와 한쪽 가슴을 드러내는 비대칭적 누비 자켓과 장갑, 큰 금속 귀걸이 역시 한쪽만 착용하였고 금속 귀걸이와 구슬 팔찌, 털 신발을 착용하여 현대적 아방가르드 요소와 과거의 순수성에 대한 전통성을 접목시켰다.

## VI. 결과 및 논의

### 1. 내용분석자료의 구성 및 분석용 용어정의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자료는 총 806개로 1970년대의 자료가 1972년부터 1978년까지의 사진 239개로 전체의 29.7%, 1980년대의 자료는 1980년부터 1988년까지의 사진 299개로 전체의 37.1%, 1990년

50) 이정후·양숙희(1997), 크로스 드레싱(cross-dressing)에 관한 연구, 복식 제 35호, 한국복식학회, p.115.

51) C. G. Jung(1964), Man and His Symbols, 이윤기 역(1997), 인간과 상징, 서울: 열린책들, p.77.

52) F. Joanne(1985), The Fashioned Self,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p.107.

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의 사진 268개로 전체의 33.3%를 차지하였다. 내용 분석을 위한 조작적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양면감정: 현대 복식에 나타난 이항 대립적 개념, 즉 '미/추', '부/빈', '정속성/비정속성', '여성성/남성성', '전통성/현대성'의 다섯가지 범주가 본 연구에서 내용 분석된 대중 패션잡지의 한 계절, 혹은 한 작품에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② 복식단서: 의복의 형태 및 디자인의 다양한 측면을 의미하며, 내용분석 대상 패션잡지에 실린 의복의 룩, 색채, 소재, 문양, 네크라인 및 칼라, 소매형태, 모자/머리형태, 화장유형의 다양한 조형양식을 의미한다.

③ 개체 내 양면감정: 한 시대, 하나의 복식에 상반되는 두 개의 이항대립적 가치가 동시에 표현된 것을 의미한다.

④ 사회 내 양면감정: 상반되는 이항대립적 가치가 한 시기의 다른 복식에 동시에 표현된 것을 의미한다.

## 2. 복식에 나타난 양면감정

### 1) 양면감정의 범주별 빈도

#### (1) 사회 내 양면감정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자료 중 이항대립적 양면 감정이 한 시대 내에 다른 복식에서 동시에 나타난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각 범주별 빈도를 살펴 보면 <표 1>과 같다.

사회 내 양면감정의 범주별 빈도를 <표 1>에서 보면 '여성성/남성성'이 34.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통성/현대성'이 27.4%로 많이 나타났고, '부/빈'과 '미/추'는 약 11%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 1980년대에는 '여성성/남성성'이 많이 나타났고, 1990년대에는 '전통성/현대성'이 높게 나타나 이시기에 에콜로지 경향이 크게 반영되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개별적인 감정으로서의 '추', '빈', '비정속', '전통성'은 197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 증가한 반면 '미', '부'는 별 변

<표 1> 사회 내 양면감정의 시기별 추이

양면감정	연 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총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미		11(3.7)	11(2.2)	18(3.7)	40(3.1)
추		20(6.7)	30(6.0)	55(11.2)	105(8.1)
계		31(10.4)	41(8.2)	73(14.9)	145(11.2)
부		11(3.7)	18(3.6)	16(3.3)	45(3.5)
빈		21(7.0)	26(5.2)	54(11.0)	101(7.8)
계		32(10.7)	44(8.8)	70(14.3)	146(11.3)
정속성		49(16.3)	16(5.2)	41(8.4)	116(9.0)
비정속성		17(5.7)	12(2.4)	61(12.4)	90(7.0)
계		66(22.0)	28(7.6)	102(20.8)	206(16.0)
여성성		72(24.0)	119(23.8)	59(12.0)	250(19.4)
남성성		36(12.0)	106(21.2)	48(9.8)	190(14.7)
계		108(36.0)	225(45.0)	107(21.8)	440(34.1)
전통성		18(6.0)	63(12.6)	67(13.7)	148(11.5)
현대성		45(15.0)	89(17.8)	71(14.5)	205(15.9)
계		63(21.0)	152(30.4)	138(28.2)	353(27.4)
양면감정사진수/ 연도별총사진수		300/239(125.0)	500/299(166.7)	490/268(181.5)	1290/806(100.0)

화가 없이 전반적으로는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정숙성'과 '여성성'은 1970년대에 비해 1990년에는 오히려 감소했으며, '남성성'은 시기별 증감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으나, 197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는 감소하여 제3의 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반영하였다.

(2) 개체 내 양면감정

본 연구에 사용된 총 806개의 자료 중 한 사진, 즉 한 개체 내에 이항대립적 양면감정이 동시에 표현된 것을 시기별로 분석하면 <표 2>와 같다.

개체 내 양면감정의 범주별 빈도를 보면, '미/추'는 3.0%, '부/빈'은 2.5%, '정숙성/비정숙성'은 6.0%, '여성성/남성성'은 9.9%로 나타났으며, '현대성/전통성'은 9.8%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살펴 본 개체 내 양면감정은 1990년대에 38.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1970년대에는 '전통성/현대성'이 많이 나타났고, 1980년대에는 '여성성/남성성'이 1990년대에는 '정숙성/비정숙성'이 급증하였다. '미/추' 양면감정은 1990년대에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반면 '부/빈'에 대한 양면감정은 1980년대, 1990년대에 비율은 낮지만 갈래 나타났다. 또한, 전 시기를 통해 한 복식에 동시적으로 표현된 양면감정은 '여성성/남성성'과 '전통성/현대성'의 비율이 비슷하게 많이 나타났는데, 특히 1980년대는 '여성성/남성성'의 양면감정이 많이 나타나 1980년대가 성 정체감에 대한 양면감정이 큰 시기임을 알 수 있다.

2) 범주별 양면감정의 표현단서 유형

(1) 사회 내 양면감정의 표현단서 유형

사회 내 양면감정의 범주별 표현단서 유형을 분석한 전반적인 경향을<표 3>에서 보면, 룩은 페미닌 룩, 색채는 black, 소재는 모직물느낌의 소재, 문양은 무문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칼라형태는 테일러드 칼라, 소매형태는 셀인 슬리브, 머리형태는 묶은 머리, 화장유형은 열고 자연스런 화장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미/추'에서 '미'의 룩은 페미닌 룩, 색채는 white, 소재는 부드러운 소재, 문양은 무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칼라형태는 라운드 넥라인, 소매형태는 셀인 슬리브, 머리형태는 커트머리, 화장유형은 열고 자연스런 화장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추'의 룩은 핑크 룩, 색채는 black, 소재는 비치는 소재, 문양은 무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칼라형태는 라운드 넥라인, 소매형태는 셀인 슬리브, 머리형태는 묶은머리, 화장유형은 열고 자연스런 화장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빈'의 경우, '부'의 룩은 페미닌 룩, 색채는 yellow/red, 소재는 거친표면의 소재, 문양은 무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칼라형태는 테일러드 칼라, 소매형태는 셀인 슬리브, 머리형태는 묶은머리, 화장유형은 열고 자연스런 화장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빈'의 룩은 푸어 룩, 색채는 yellow/red, 소재는 면직물 소재, 문양은 무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칼라형태는

<표 2> 개체 내 양면감정의 시기별 추이 총 분석자료=806

양면감정	연 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총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미/추		6(2.5)	7(2.3)	11(4.1)	24(3.0)
부/빈		3(1.3)	9(3.0)	8(3.0)	20(2.5)
정숙성/비정숙성		8(3.3)	10(3.3)	30(11.2)	48(6.0)
여성성/남성성		11(4.6)	44(14.7)	25(9.3)	80(9.9)
전통성/현대성		14(5.9)	36(12.0)	29(10.8)	79(9.8)
계		42/239(17.6)	106/299(35.5)	103/268(38.3)	251/806(31.1)

<표 3> 사회 내 양면감정 범주별 표현단서 유형의 분석 결과

양면감정 복식단서	미	추	부	빈	정속성	비정 속성	여성성	남성성	전통성	현대성	총계
록	페미닌 (22.5)	핑크 (28.6)	페미닌 (24.4)	푸어 (24.8)	페미닌 (25.9)	섹시 (46.7)	페미닌 (34.4)	매니쉬 (21.6)	에콜로지 (30.4)	스포티브 (17.6)	페미닌 (15.7)
	그래픽 (15.0)	푸어 (15.2)	에콜로지 (17.8)	섹시 (15.8)	수트 (18.1)	핑크 (15.6)	수트 (15.2)	앤드르 지너스 (17.4)	레트로 (15.5)	그래픽 (15.1)	에콜로지 (12.2)
색채	white (27.5)	black (17.1)	Y/red (20.0)	Y/red (20.0)	black (17.2)	black (25.6)	black (17.2)	black (20.5)	black (23.0)	black (23.4)	black (19.3)
	black (22.5)	white (15.2)	blue (15.8)	blue (17.8)	white (15.5)	blue (11.1)	red (15.6)	Y/red (17.4)	white (16.2)	white (19.5)	white (14.4)
소재	부드 러운 (22.5)	비치는 소재 (21.0)	거친 표면 (15.6)	면직물 느낌 (15.8)	모직물 느낌 (22.4)	비치는 소재 (32.2)	부드 러운 (24.4)	모직물 느낌 (31.6)	부드 러운 (18.9)	모직물 느낌 (16.1)	모직물 느낌 (17.6)
	모직물 느낌 (17.5)	모직물 느낌 (15.2)	모직물 느낌 (13.3)	부드 러운 (12.9)	부드 러운 (15.5)	부드 러운 (12.2)	모직물 느낌 (16.0)	뻣뻣한 느낌 (17.9)	모직물 느낌 (15.5)	부드 러운 (15.1)	부드 러운 (15.4)
문양	무문 (47.5)	무문 (41.0)	무문 (35.6)	무문 (47.5)	무문 (39.7)	무문 (33.3)	무문 (37.2)	무문 (53.2)	기하학 (31.1)	기하학 (41.0)	무문 (40.2)
	기하학 (22.5)	기하학 (26.7)	기하학 (33.3)	기하학 (31.7)	기하학 (36.2)	기하학 (32.2)	기하학 (24.4)	기하학 (36.8)	무문 (27.0)	무문 (40.0)	기하학 (32.2)
넥 라인/ 칼라	라운드 N.L (15.0)	라운드 N.L (21.9)	테일 러드C. (17.8)	라운드 N.L (17.8)	테일 러드C. (21.6)	브이 N.L (17.8)	테일 러드C. (20.0)	테일 러드C. (34.7)	라운드 N.L (18.2)	테일 러드C. (16.1)	테일 러드C. (16.7)
	브이 N.L (12.5)	오브통칼 라 (11.4)	스텐 칼라 (15.6)	브이 N.L (15.8)	스텐 칼라 (15.5)	라운드 NL (15.6)	라운드 NL (15.2)	스텐 칼라 (15.2)	스텐 칼라 (15.5)	라운드 N.L (15.1)	라운드 NL (13.8)
소매 형태	셀인 (30.0)	셀인 (29.5)	셀인 (55.6)	셀인 (37.6)	셀인 (56.9)	셀인 (36.7)	셀인 (38.0)	셀인 (51.1)	셀인 (35.1)	셀인 (28.3)	셀인 (39.3)
	커프드 슬리브 (20.0)	슬리브 리스 (17.1)	드롭 프트 (15.6)	드롭 프트 (26.7)	커프드 슬리브 (15.5)	슬리브 리스 (30.0)	커프드 슬리브 (16.0)	커프드 슬리브 (15.8)	드롭 프트 (17.6)	드롭 프트 (21.5)	드롭 프트 (13.9)
모자/ 머리 형태	커트 머리 (22.5)	묶은 머리 (22.9)	묶은 머리 (17.8)	묶은 머리 (17.8)	생머리 (16.4)	묶은 머리 (23.3)	퍼머 머리 (20.8)	커트 머리 (15.8)	묶은 머리 (18.2)	묶은 머리 (18.5)	묶은 머리 (17.5)
	묶은 머리 (20.0)	커트 머리 (16.2)	퍼머 머리 (15.6)	퍼머 머리 (17.8)	퍼머 머리 (16.4)	생머리 (20.0)	묶은 머리 (18.0)	생머리 (15.2)	퍼머 머리 (15.5)	커트 머리 (18.5)	퍼머 머리 (15.7)
화장 유형	열고자연 스런 (55.0)	열고자연 스런 (59.0)	열고자연 스런 (66.7)	열고자연 스런 (77.2)	열고자연 스런 (73.5)	열고자연 스런 (70.0)	열고자연 스런 (55.2)	열고자연 스런 (62.6)	열고자연 스런 (64.2)	열고자연 스런 (61.0)	열고자연 스런 (63.6)
	질은 (37.5)	질은 (26.7)	질은 (31.1)	질은 (16.8)	질은 (25.9)	질은 (27.8)	질은 (43.2)	질은 (35.3)	질은 (31.1)	질은 (32.7)	질은 (32.3)

라운드 넥라인, 소매형태는 셀인 슬리브, 머리형태는 묶은머리, 화장유형은 열고 자연스런 화장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정숙성'/'비정숙성'에서 '정숙성'의 룩은 페미닌 룩, 색채는 black, 소재는 모직볼 느낌의 소재, 문양은 무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칼라형태는 테일러드 칼라, 소매형태는 셀인 슬리브, 머리형태는 생머리, 화장유형은 열고 자연스런 화장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비정숙성'의 룩은 섹시 룩, 색채는 black, 소재는 비치는 소재, 문양은 무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칼라형태는 브이 넥라인, 소매형태는 셀인 슬리브, 머리형태는 묶은머리, 화장유형은 열고 자연스런 화장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여성성'/'남성성'의 경우, '여성성'의 룩은 페미닌 룩, 색채는 black, 소재는 부드러운 소재, 문양은 무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칼라형태는 테일러드 칼라, 소매형태는 셀인 슬리브, 머리형태는 퍼머머리, 화장유형은 열고 자연스런 화장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남성성'의 룩은 매니쉬 룩, 색채는 black, 소재는 모직볼 느낌의 소재, 문양은 무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칼라형태는 테일러드 칼라, 소매형태는 셀인 슬리브, 머리형태는 커트머리, 화장유형은 열고 자연스런 화장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전통성'/'현대성'의 경우, '전통성'의 룩은 에콜로지 룩, 색채는 black, 소재는 부드러운 소재, 문양은 기하학 문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칼라형태는 라운드 넥라인, 소매형태는 셀인 슬리브, 머리형태는 묶은머리, 화장유형은 열고 자연스런 화장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현대성'의 룩은 스포티브 룩, 색채는 black, 소재는 모직볼느낌의 소재, 문양은 기하학 문양에서 많이 나타났다. 칼라형태는 테일러드 칼라, 소매형태는 셀인 슬리브, 머리형태는 묶은머리, 화장유형은 열고 자연스런 화장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사회 내 양면감정의 범주별 표현단서 유형의 분석결과, 룩, 색채, 모자/머리형태에서는 양면감정별로 다양한 표현단서 유형이 표출되었

으나 문양, 소매형태, 화장유형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룩, 색채, 모자/머리형태가 양면감정의 표현단서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 시대의 양면적 감정은, 한 개인에게 동시적으로 표출되면서 양면으로 이끌리는 갈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사회라는 구조를 단위로 보는 거시적 관점에서는, 두 개의 상반되는 이원적 감정이 사회구성원 내 각각 다른 개체가 표방하는 형식으로서 동시에 나타날 때가 더욱 많다. 이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한 사회가 다원적 가치를 표방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지만, 다른 소극적 의미에서는 한 사회의 가치관이 이원적 감정의 양쪽으로부터 이끌림에 흔들리고 있으며, 한 사회의 가치관의 불명료성, 모호성, 우유부단함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내 이원적 감정의 독립적 범주 각각이 한 시대 내에서 동시에 나타난 현상을 한 사회가 지니는 거시적 양면감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 (2) 개체 내 양면 감정의 표현단서 유형

개체 내 양면감정의 범주별 복식단서를 분석한 전반적 경향은 <표 4>와 같다. '미/추'의 경우<사진 1>, 페미닌 룩, 색채는 white, 소재는 부드러운 소재, 직물문양은 기하학 문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칼라는 라운드 넥라인, 소매형태는 슬리브리스 슬리브, 머리형태는 커트머리, 화장유형은 열고 자연스런 화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빈'의 경우<사진 2>, 룩은 페미닌 룩, 색채는 yellow/red, 소재는 거친 표면의 소재, 직물문양은 기하학 문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칼라는 라운드 넥라인, 소매형태는 셀인 슬리브, 머리형태는 묶은머리, 화장유형은 열고 자연스런 화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정숙성/비정숙성'의 경우<사진 3>, 룩은 섹시 룩, 색채는 black, 소재는 비치는 소재, 직물문양은 무문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칼라형태는 테일러드 칼라, 소매형태는 셀인 슬리브, 머리형태는 생머리, 화장유형은 열고 자연스런 화장에서 가장 많이



<표 4> 개체 내 양면감정 범주별 복식단서의 분석결과

양면감정 복식단서	미/우	부/빈	정속성/ 비정속성	여성성/ 남성성	전통성/ 현대성	총계
룩(look)	페미닌룩 (20.8)	페미닌룩 (30.0)	섹시룩 (35.4)	앤드로지너스 (25.0)	에콜로지룩 (26.6)	에콜로지룩 (15.9)
	핑크룩 (16.7)	에콜로지룩 (15.0)	핑크룩 (16.7)	매니쉬룩 (18.8)	그래픽룩 (12.7)	페미닌 (12.7)
색채	white (37.5)	yellow/red (25.0)	black (27.1)	black (17.5)	black (25.3)	black (20.3)
	black (16.7)	blue (20.0)	blue (16.7)	yellow/red (16.2)	white (20.3)	white (15.9)
소재	부드러운소재 (25.0)	거친표면소재 (20.0)	비치는 소재 (22.9)	모직물느낌 (26.3)	부드러운소재 (16.5)	모직물느낌 (19.5)
	비치는 소재 (20.8)	모직물느낌 (15.0)	모직물느낌 (20.8)	뽀뽀한소재 (18.8)	모직물느낌 (15.2)	부드러운소재 (15.9)
직물문양	기하학 (25.0)	기하학 (35.0)	무문(33.3)	무문(41.2)	기하학 (36.7)	기하학 (33.9)
	무문 (20.8)	무문 (30.0)	기하학 (27.1)	기하학 (37.5)	무문 (25.3)	무문 (32.7)
네크라인 /칼라	라운드 NL (20.8)	라운드NL (25.0)	테일러드 (20.8)	테일러드 (40.0)	라운드 NL (16.5)	테일러드 (21.5)
	브이 NL (16.7)	스텐칼라 (15.0)	브이NL (18.8)	스텐 (16.8)	테일러드 (12.7)	라운드 NL (13.1)
소매형태	슬리브리스 (29.2)	셀인 (30.0)	셀인 (41.7)	셀인 (48.8)	셀인 (31.6)	셀인 (37.1)
	드롭프트 (20.8)	드롭프트 (25.0)	슬리브리스 (22.9)	커프드 (18.8)	드롭프트 (21.5)	드롭프트 (16.7)
모자/ 머리형태	커트머리 (25.0)	묶은머리 (25.0)	생머리 (25.0)	생머리 (17.5)	묶은머리 (19.0)	묶은머리 (17.1)
	묶은머리 (20.8)	퍼머머리 (20.0)	묶은머리 (20.8)	커트머리 (15.0)	커트머리 (16.5)	생머리 (14.7)
화장유형	열고 자연스런 (37.5)	열고 자연스런 (50.0)	열고 자연스런 (56.3)	열고 자연스런 (52.5)	열고 자연스런 (57.0)	열고 자연스런 (53.0)
	질은 (29.2)	질은 (35.0)	질은 (31.3)	질은 (41.9)	질은 (30.4)	질은 (34.7)
총계	24/806(3.0)	20/806(2.5)	48/806(9.9)	80/806(9.8)	79/806(9.8)	251/806 (8.0)

나타났다. '여성성/남성성'의 경우<사진 4>, 룩은 앤드로지너스 룩, 색채는 black, 소재는 모직물느낌의 소재, 직물문양은 무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칼라에는 테일러드 칼라, 소매형태는 셀인 슬리브, 머리형태는 생머리, 화장유형은 열고 자연스런 화장에서 가

장 많이 나타났다. '전통성/현대성'의 경우<사진5>, 룩은 에콜로지 룩, 색채는 black, 소재는 부드러운 소재, 직물문양은 기하학 문양의 순으로 나타났다. 칼라형태는 라운드 네크라인, 소매형태는 셀인 슬리브, 머리형태는 묶은머리, 화장유형은 열고 자연

스런 화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개체 내 양면감정의 범주 별 복식단서의 분석결과 룩, 색채, 소재, 직물문양, 네크라인/칼라형태, 모자/머리형태에서 양면감정 별로 다양한 표현단서 유형이 표출되었으나, 소매형태, 화장유형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사회내 양면감정 별 표현단서유형과 비교하면 양면감정이 개체 내에 공존하는 경우에 더 다양한 표현단서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개체 내 양면감정이 사회 내 양면감정에 비해 이항대립적 개념을 표출하거나 분석할 때 더 강화된 갈등을 겪는데서 기인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VI. 요약 및 제언

양면감정은 상반된 감정이나 태도에서 비롯된 불안정성으로,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현대인들의 정서적 구조를 이룬다. 후기자본주의의 소비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의 탈중심화 현상으로 더욱 증가된 양면감정은, 인간의 가시적 자아표현이며, 문화의 상징물인 복식을 통해 표출되어 왔으며, 이는 지속적인 유행변화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양면감정의 개념, 양면감정의 증대요인 및 양면감정과 유행확산과의 관계, 복식에서의 양면감정 범주를 고찰하고 현대복식에 나타난 양면감정의 표현단서의 표출형식을 밝히기 위해서 문헌연구 및 내용분석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사회의 대량생산, 대량소비현상과 대중매체의 발달은 문화의 범속화 현상을 가속화 시켰고, 1980년 이후 서구에서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구조주의의 영향으로 고급문화/대중문화, 물질/문화, 남성/여성 등의 이분법적 경계가 해체되고 대중문화는 통합/일탈, 지배/저항, 미/추, 전통성/현대성 등의 양면감정이 증가하였다. 후기자본주의의 시장은 소비자들의 양면감정의 불안정한 상태 혹은 의미의 모호성으로부터 야기되는 혼동과 갈등을 상

품에 표현하여 소비자의 변화욕구를 자극하여 소비를 촉진한다. 이미 다양화된 상품시장에서는 정체하기 쉬운 소비욕 때문에 기존의 형태만을 모방하거나 변화시키는 혼성모방을 통해 유행변화를 유도한다. 양면감정은 인간의 내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스타일이나 외모에서 저항적인 갈망이나, 감정을 수반한다. 더욱이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에서 오는 불안정성으로 인한 정체감의 혼돈이 복식을 통해 표출됨으로써, 현대복식에서도 다원적 가치를 표방하거나 이항대립적인 개념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복식의 유행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의미의 모호함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정체성을 찾기 위한 의미협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이는 유행의 가속화 현상을 초래했다.

복식에 나타난 양면감정 범주는 '미/추', '부/빈', '정숙성/비정숙성', '여성성/남성성', '전통성/현대성' 등으로 나타났다. '미/추'의 범주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던 '추'가 '미'와 대등한 미적 가치로서 추구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미적 가치로서의 '추'의 미는 19C 이후부터 시작하여 최근에는 문형식, 아방가르드, 왜곡, 그로테스크 등의 형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있다. '부/빈'의 범주에서의 양면감정은 빈곤함을 상징하는 스타일이 부유함을 역설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정숙성/비정숙성'의 범주에서는 인간의 신체를 은폐하면서 동시에 노출하고자 하는 상반된 갈등욕구의 양면감정이 복식에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억제되어 왔던 인간의 과시적 노출욕구가 적극적으로 시도되었으며, 동시에 성욕구의 솔직한 표현을 통해 인간성 회복을 추구하였다. '여성성/남성성'의 범주에서는 이성모방을 추구하는 심리로부터 유발되는 양면감정이 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여성/남성 복식을 나타내는 이원적 표현양식에서 점차 벗어나 양성의 복식특성이 공존하는 앤드로지너스 룩이 나타났다. '전통성/현대성'에서의 양면감정은 문명의 발달로 야기되는 환경위기의식, 불안정성으로 인한 전통과 과거의 순수성으

로의 회귀현상으로 나타났으며, 복식에서는 복고풍 스타일, 전통복식의 왜곡, 에콜로지 룩, 해체된 현대적 스타일의 공존으로 나타났다.

한 복식에 이항대립적 양면감정이 동시에 표현된, 개체 내 양면감정은 전 시기를 통해 '여성성/남성성', '전통성/현대성'의 양면감정이 많이 나타났고, '부/빈'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1990년대에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970년대에는 '전통성/현대성'이, 1980년대에는 '여성성/남성성'이, 1990년대에는 '정숙성/비정숙성'이 급증하였다. 특히 '여성성/남성성'은 1980년에 많이 나타나, 이 시기가 성 정체감에 대한 양면감정이 큰 시기임을 알 수 있다.

개체 내 양면감정의 표현단서 유형의 분석 결과를 보면, '미/추'는 조화와 균형, 우아함으로 표현되었던 전통적인 미개념이 파괴되고,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펑크패션 등으로 표출되었던 미의 하위 개념적인 '추'가 미적 요소를 극대화시키는 적극적 미의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급증하였다. '부/빈'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빈, 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복식을 통해 신분상승을 꾀하거나 소비의 고급화가 일어나게 되어 '부'를 상징하는 복식과 장식 등이 증가했으나, 이와 대립되는 '빈'의 가치가 포스트모더니즘의 탈중심화 현상과 함께 대두된 일본의 선(禪) 미학과 비구조적인 복식형태에서 비롯된 푸어 룩에서 나타남으로써, '빈'의 가치는 부유함의 역설적 형태인 과시적 위반이 나타났다. '정숙성/비정숙성'은 신체의 은폐/노출의 상반된 욕구를 복식에 표현하여 성적 매력을 표출하려는 양면감정으로, 정숙성의 왜곡과 비정숙성의 강조에 의한 섹시룩, 펑크룩, 속옷을 겉옷화하는 란제리 룩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성/남성성'의 양면감정은 성역할에 대한 인식변화, 스포츠, 레저의 대중화, 페미니즘의 영향 등으로 1980년대 이후 두드러진 경향이다. 이는 이성의 성적 특성을 대변하는 아이টে임을 차용하여, 양성적 특성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인간상을 추구하는 앤드로지너스 룩으로 나타났다. '전

통성/현대성'은 문명의 발달로 야기되는 환경보호 의식의 에콜로지 룩으로 민족고유의 정서를 지향하는 에스닉 룩과 과거 지향의 레트로 룩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는 반면, 미래 지향적이고, 아방가르드한 현대적 감성이 공존하는 경향이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에 중점을 두고 내용분석적으로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연구대상 선정 및 분석기준에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 연구결과에 확대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양면감정 범주 외의 다양한 범주고찰 및 대중문화, 하위문화권에 나타난 대중패션 및 특수패션에 나타난 양면감정과 의복단서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복식을 통한 인간의 정체성 표현을 이해하여 그 결과를 복식사회심리학, 복식디자인, 패션마케팅 등 계 분야에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혜숙·김혜련(1997), 예술과 사상,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 문화와 사회연구회(1994), 현대와 탈현대,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蘇斗永(1995), 文化記號學, 서울: 社會文化研九所.
- 원용진(1997),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서울: 한나래.
- 홍대식(1994), 사회심리학, 서울: 청암미디어.
- Aronowitz, S.(1994), Introduction : The Death of Art, 남인영 역(1996), 21세기 문화 미 리보기, 서울: 시각과 언어.
- Ashley, I.(1972), CoCo, In. Lynam.
- Barthes, R.(1984), Writing Degree Zero & Elements of Semiology, trans. by A .Lavers and C. Smith, London: Jonathan Cape.
- Bauman, Z.(1991), Modernity and Ambivalence,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1992), Mortality, Immortality and Other Life Strategi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 Press.
- Capra, F., *The Tao of Physics*, 이성범 · 김용정 역 (1979),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증보 제3판*, 서울: 법양사.
  - Davis, F.(1992),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lügel, C.(1967), *Psychology of Dress(Clothing)*, N.Y.: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Freud, S., *Totem and Taboo*, Trans. J. Strachey (1950), New York: W. W. Norton.
  - Glockner, H, Rosenkranz, K, & Fischer, K, als A'sthetiker der Hegelschen, Schule(1931).
  - Joanne, F.(1985). *The Fashioned Self*,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Jung, C.G.(1964), *Man and His Symbols*, 이윤기 역(1997), *인간과 상징*, 서울:열린책들.
  - Lofland, L, H.(1973), *A World of Strangers*, New York: Basic Books.
  - MaCracken, G.(1988), *Culture and Consumption*, 이상률 역(1997), *문화의 소비*, 서울: 문예출판사.
  - Merton, R.(1976), *Sociological Ambivalence*, New York: Free Press.
  - Nietzsche F.(1887), *Der Wille zur Macht*, 강수남 역(1998), *니체*, 서울: 청하.
  - Saussure, F de(1966),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trans. by W.Baskin, New York: McGraw-Hill.
  - Steel, V. (1998), *Se Vêtir all xxe Siecle De 1945 à nos jours*, Paris: Adam Biro.
  - Struss, C. L.(1963), Strauss(1963), *Structural Anthropology*, trans. by C.Jacobson and B. G. Schoepf, London: Basic Books Inc.
  - Veblen, T.(1899). *The theory of Leisure Class*, 정수용 역(1985), *유한계급론*, 서울: 동녘.
  - Weigert, A. J.(1991), *Mixed Emotions*,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es.
  - 김인숙(1998), *여성잡지 의류광고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선경(1994), *현대 복식에 표현된 추의 개념, 1980년대 중반부터 1994년까지*,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후 · 양숙희(1997), *크로스 드레싱(cross dressing)에 관한 연구*, 복식, 제35호, 한국 복식학회, pp.111-134.
  - Baudrillard, J.(1991), *For acritique of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ign*, Trans with intro. by C. Levin, St. Louis: Telos Press.
  - Faurschou, G.(1987), *Fashion and Cultural Logic of Postmodernism: Canadian Journal and Social Theory*, II:1-2, p.72
  - Fisher-Mirkin, T.(1995), *Dress Code: Understanding the hidden meaning of Women's Clothes*, Clakson Potter, pp.172-173.
  - Garrison, M.(1982), *The Poetics of Ambivalence*, In J. Hillman(ED), *Spring: An Annual of Archetypical Psychology and Jnugian Thought* (pp.213-232), Dallas, TX: Spring Publication.
  - Harris, R.(1989), 'Children Who Dress For Excess,' *Los Angeles Times*, San Diego County Section, Nov.12.
  - Jakobson R., Cherry C. and Halle M.(1962), *Toward the Logical Description of Languages in their Phonemic Aspect*, in Roman Jakobson's *Selected Writings Vol.1*, The Hague:Mouton.
  - Kaiser, S. B. Nagasawa, R. H., & Hutton, S. S.(1995a), *Construction of an SI theory of Fashion: Part 1. Ambivalence and Chang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3(3), pp.172-183.
  - \_\_\_\_\_(1995b), *Construction of an SI Theory of Fashion: Part 2. from Discovery to Formalizat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3(4), pp.234-244.

- \_\_\_\_\_(1995c), Construction of an SI Theory of Fashion: Part 3, Context of Explanat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4(1), pp.54-62.
- Britanica World Encyclopedia 10(1993), 서울:한 국브리태니커.
-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986), Springfield, MA.: Merrian Webster Inc.

- *Collections*: '74S/S, '74A/W, '76A/W, '78S/S, '78A/W, '80A/W, '82S/S, '82A/W, '84S/S, '84A/W, '86S/S, '86A/W, '88S/S, '88A/W, '90A/W, '92A/W, '94A/W, '96S/S, '96A/W, '98S/S.
- *Collezioni*: '90S/S, '92S/S, '94S/S.
- *Vogue(Paris)*: '72S/S, '72A/W.
- *Mode et Mode*: '76S/S, '80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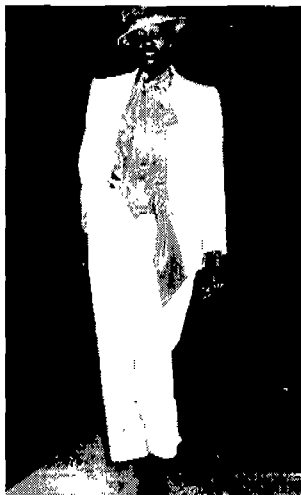
<사진 1> Yoshiki Hishnuma, *Collections*, '98S/S. p.264.



<사진 2> Larvin, *Collections*, '96-'97 A/W. p.305



<사진 3> Christian Dior, *Collections*, '98S/S. p.44.



<사진 4> St. Laurant, *Mode et Mode*, '78S/S, p.35.



<사진 5> Issey Miyake, *Collezioni*, '90-'91A/W, p.294.